

비수기 건질 한국영화 '복병' 들

현재 개봉중인 '별새' · 내달 개봉 '가장 보통의 연애' · '양자물리학'



이번 추석 시즌 극장가가 입은 수혜는 크지 않았다.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영화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감독 손용호)로 개봉 8일째인 지난 18일까지 314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그밖에 '타짜: 윈 아이드 잭'이 2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18일 기준 187만 5442명), '힘을 내요, 미스터 리' 99만 941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전통적 성수기라 여겨지는 추석 시즌에 관객몰이가 실패했던 만큼, 추석 이후 시즌인 영화들이 관객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수기에도 특별한 내용으로 '흥행 대박'을

터뜨린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복병'으로 부상할 작품들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기존 개봉 영화 중 가장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영화 '별새' (감독 김보라)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영화는 비슷한 시기 개봉한 상업 영화들이 차차 박스오피스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15개 영화제에서 25개의 상을 받고, 개봉 후 줄곧 일반 관객과 평론가를 막론하고 호평을 받고 있는 '웰메이드' 영화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다. '별새'는 1994년을 배경으로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열 네살 은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개봉을 앞둔 상업 영화 중에서

'가장 보통의 연애' (감독 김한결)와 '퍼펙트맨' (감독 용수)이 돋보인다. 한 주 앞서 개봉하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감독 과경택 김태훈)이 '인천상륙작전'의 뒤를 잇는 전통적인 대작이라면 두 편의 영화는 매력적인 배우들을 앞세운 중간 사이즈의 상업 영화다. '가장 보통의 연애'는 이별의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아픔을 달래고 있는 까칠한 후회남 재운(김래원 분)과 이미 끝난 연애에 종지부를 찍고 뒤돌아보지 않는 돌직구 현실파 선영(공효진 분)의 현실적인 연애사를 그리는 영화다. 사랑과 이별에 대해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남녀의 캐릭터를 배우 김래원과 공효진이 각각 맡았

다. 어떤 상대역과도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로코퀸' 공효진과 연기와 김래원의 만남이 관련 포인트다. '가장 보통의 연애'와 함께 10월 2일, 같은 날 개봉하는 '퍼펙트맨'은 설경구와 조진웅가 출연한 코미디 영화다. 까칠한 로펌 대표 장수(설경구 분)와 절없는 꼴통 건달 영기(조진웅 분)가 사랑보험금을 걸고 벌이는 이야기를 다뤘다. 설경구 조진웅 외에도 진선규 허준호 지승현 그리고 김사랑 등이 출연했다. 이 영화는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만나, 치고 받는 콤플렉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과 같은 날인 오는 25일 개봉하는 '양자물리학' (감독 이성태) 역시 복병이 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양자물리학적 신념을 인생의 모토로 삼은 유홍계 화타 이찬우가 업계 킥 성수영(서예지 분), 경찰 계장 박기현(김상호 분) 등과 함께 손을 잡고 검사와 재벌, 조폭이 연루된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 박혜수의 첫 스크린 주연작인 이 영화는 그 외에도 김상호, 김우성, 이창훈 등 돋보이는 연기와 배우들이 포진해 흥미로운 양상미를 만들었다.

뉴스1



#장르확장 #퍼포먼스 #메시지 세븐틴, '독: Fear' 관전 포인트

그룹 세븐틴이 지난 16일 정규 3집 앨범 '언 오드' (An Ode)로 컴백,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세븐틴은 정규 앨범으로서 1년 10개월 여 만에 돌아온 만큼 더욱 뚜렷한 가치관은 물론 탄탄해진 음악적 역량을 담아내는 등 성숙된 모습으로 대중 곁을 찾아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규 3집의 타이틀곡 '독: Fear'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귀가에 퍼지며 음악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타이틀곡 '독: Fear'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며 세븐틴의 음악을 더 깊게 느껴보자.

◇ 퍼포먼스 무대 장인
'세븐틴'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퍼포먼스 무대'에 '독' 같이 치명적인 세븐틴의 다크하고 섹시한 콘셉트가 더해졌다. 더불어 곡에 맞게 몸매까지 두려움을 마시는 듯한 동작, 독에 취해 항을 맡는 동작을 비롯한 다채로운 안무는 안무의 질감을 뚜렷이 나타내며 퀄리티를 높이고 있고, 완벽한 안금 조절의 퍼포먼스 또한 세븐틴의 치명적인 섹시함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곡과 퍼포먼스를 하나의 작품과 같이 본다면 말 그대로 이(耳)와 목(目)이 즐거운 무대로 더 깊게 즐길 수 있다.

◇ 콘셉트와 장르의 확장
기존 청량함의 무드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컴백한 세븐틴, 성숙한 모습과 치명적인 섹시함은 더욱 과감해져서 돌아왔다. 특히 그동안 대중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들의 가장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 막 컴백해 한 주 음악 방송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지금, '세븐틴 표' 같은 어두움에 대한 반응은 '독'이 아닌 '약'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진 내면의 두려움과 어두움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세븐틴은 물론 타이틀곡 '독: Fear'에 더 매료될 것이다.

◇ '두려움'의 메시지
통찰하며 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은 '독: Fear'를 통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븐틴이 전하고 있는 '두려움'은 데뷔 이후 성장하면서 겪어내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 중 하나인 '두려움'의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해냈다. 누구나 삶 속에서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세븐틴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공감하며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븐틴은 22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를 통해 타이틀곡 '독: Fear' 무대를 선보였다.

뉴스1

"선처는 없다" 임창정, 악플러 법적대응 예고

가수 임창정이 악플러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임창정의 소속사 에스 아이엠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임창정과 관련된 전 소속사와 공연기획사들 간의 문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족 이야기 등에 일부 악플러들의 추측성 댓글과 악성 루머들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 임창정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연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적 없으며,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불

'나쁜 녀석들' 10일 연속 1위, 366만 관객 돌파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1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감독 손용호)는 개봉 11일째인 21일 28만 4456명의 관객을 동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366만 1322명이다. 19일 개봉한 '애드 아스트라' (감독 제임스 그레이)는 13만 5482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타짜: 윈 아이드 잭' (감독 권오광)은 12일 35만 3543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한편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교도 소 호송차량이 전복돼 범 죄자들이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오구탁 (김상중 분) 반장 과거 함께 활약했던 전설의 주먹 박용철 (마동석 분)을 다시 찾아가고 감성 사기꾼 광노순 (김아중 분)과 전직 형사 고유성 (장기용 분)을 영입해 새로운 팀을 꾸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